

# 생계지원금 인상...4인가구 130만원→153만원

###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로 확대

### 실거주 주택·예금공제 등 재산기준 완화

7월부터 위기 상황의 저소득층에 게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30만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17.73% 인상된다.

지급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26%에서 30%로 확대되며, 실거주 주택 1개를 소유해 처분하기 난처한 이들을 위해 일부 공제 한도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처럼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 발표 생계지원금 인상안에 따르면 현재 4인 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17.73%, 3인가구는 106만6000원에서 125만8400원으로 18.04% 오른다.

6인 가구의 경우 177만3700원에서 207만2100원으로 16.82%, 5인가구는 154만1600원에서 180만7300원으로 17.23% 각각 인상된다. 1인가구는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19.35%, 2인 가구는 82만

6000원에서 97만8000원으로 18.4% 상향 조정됐다.

의료지원비 한도는 1회 300만원 이내로 유지된다. 기타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재산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실거주 중인 주택 1개소의 일부 재산을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했다.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이다. 기준금액은 대도시의 경우 현행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은 1억3000만원이지만 주거용재산 공제를 합산하면 대도시는 최대 3억1000만원, 중소도시 최대 1억9400만원, 농어촌 1억6500만원까지 인정된다.

한 예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포함해 재산이 2억8000만원인 서울 거주자라면 생계지원금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주거용재산 공제 한도액이 적용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예금 등 조회된 금융재산액에 적용되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높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생활준비금 공제액은 현행 332만9000원에서 179만2000원이 늘어난 512만1000원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금융재산 기준액 600만원과 합산해 조회결과 금융재산 총액이 932만9000원이 넘으면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7월 1부터는 112만1000원 이하일 때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전남교육청, 지역업체 물품박람회...경제 활성화 도모

### 중·소 제조업체 대상 오는 10월 20~21일

전남도교육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2 지역업체 물품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20일~21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1층 다목적홀에서 '2022 지역업체 물품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 참가 업체 모집기간은 오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체 생산 물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기획했다.

전남교육청은 참가 업체를 모집한 뒤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50개 안팎의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 업체의 사정을 고려,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해 부스와 실비



범위 내 부스운영비를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모집 기간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한국에너지공대, 제1회 학부모 진로 컨퍼런스 '성황'

###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을 위해 지식 나눔의 장 마련



한국에너지공대(이하 켄텍)가 주최하고 전남도청, 나주시가 후원하는 '제1회 학부모 대상 진로 컨퍼런스'

가 지난 21일 매성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초·중·고교 학부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

다. '고교학점제 실시와 미래 에너지 전망'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켄텍 윤의준 총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서울대 김경범 교수가 '고교학점제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주제로 첫 강연을 진행했다.

켄텍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고교학점제 실시 및 미래 에너지 전망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전문 교육...'공무원 역량속속'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중앙연구기관과 잇단 교류로 산림 분야 최신 정책을 공유하는 등 산림복지 실현의 바탕이 될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치유센터에서 완도수목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2022 제2회 산림자원연구소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21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순천시 산림정책연구부장을 초청해 중앙연구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교류의 자리로 마련했다.

교육은 '산지지형 공간구조와 산림정책 동향'을 주제로 녹지 분야 공무원이 알아야 할 산지 공간 구조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산림정책 동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 직원들은 평소 업무 추진 시 궁금했던 질문을 토로 형식으로 이어가는 등 토론과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올 들어 분기별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 제1회 교육은 전남 산림연구소 100주년을 맞아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을 초청해 '탄소중립시대, 미래를 향한 산림연구'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 영산강환경청, 녹조 방지 배출사업장 점검

### 와탄천·삼포천 근처 가축분뇨배출·처리 시설 10곳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녹조 방지를 위해 영광 와탄천과 나주 삼포천 근처 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 10곳을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은 다른 시설과 비교해 녹조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인·질소 등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다.

점검 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가축 분뇨·퇴비·액비 유출 우려 행위 ▲배출시설 관리 기준 준수 등이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매년 여름철 악취 문제를 유발하는 녹조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자

## 내달 11일까지 북구민상 후보자 공모

### 5개 부문...오는 9월 '북구민의 날' 기념행사서 시상

북구는 다음 달 11일까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주민을 대상으로 '제15회 북구 주민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후보자 추천은 각급기관이나 사회단체장 또는 지역주민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 공적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북구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는 ▲지역경제 ▲지역사회봉사 ▲문화예술체육 ▲효행 ▲장한 장애인 등 5개 부문으로 나뉜다. 공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북구에 거주한 주민으로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체육 부문은 북구에

서 3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구민상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결정되고 시상은 9월에 열릴 '북구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뤄진다.

/권형안 기자

## '일방 거래 중단' 포스코케미칼 시정명령

### 공정위 '협의·통지 없이 계약 일방 종료'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반년 남은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용역 물량을 다른 업체로 넘겨 협력업체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했던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의 일방적인 계약 중단으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됐다.

피해 기업인 세강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한 제재에 대기업 봐주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 기간 중 인데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해 협력업체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광양시 태인동에 분사를 두고 있는 세강산업(주)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작업 계약을 맺고 거래를 이어왔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 2019년 7월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고 4843만원 가량의 용역 물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광양시 태인동에 분사를 두고 있는 세강산업(주)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작업 계약을 맺고 거래를 이어왔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 2019년 7월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고 4843만원 가량의 용역 물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의 95%를

세강산업(주)은 "잡다한 내용만 상정됐고, 발주 중단 금액도 월 평균 1600만원으로 6개월간 1억 2000만 원 가량인데, 어떻게 4843만 원 가량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변호사를 통해 재신청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 래 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